

본회의 회의록

학교장

위원장



- 일 시 : 2018년 5월 25일(금요일) 11시 00분 - 12시 00분
- 장 소 : 장학실

- 회 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학교장 인사 및 부위원장 인사
 4. 부위원장 개의 선언
 5.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6. 안전심의
 7. 기타사항 협의
 8. 폐회

- 상정안건(부의된 안건)
 1. 2018.9.1.자 교장공모제 지정 계획 심의(안)
 2.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변경 계획(안)

○ 개회 및 국민의례

간사대리(김현덕)

지금부터 제68회 전주만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일동경례)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학교장 및 부위원장 인사

학교장(강희석)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에 2018학년도 1학기 학교교육과정의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9.1.자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에 관한 심의와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변경 계획(안) 2가지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입니다. 교장공모제는 학교교육방침과 경영에 중요한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간사대리(김현덕)

다음으로 오늘 위원장님 불참으로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양진석)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전주만수초등학교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개의선언

부위원장(양진석)

그럼 위원 12명중 10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으므로 제68회 전주만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인 행정실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간사대리(김현덕)

행정실 주무관 김현덕입니다.
제68회 전주만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소집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17일 학교장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소집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안건은 2018.9.1.자 교장공모제 지정 계획 심의(안) 외 1건이 제출되어 심의 받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67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의안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12일 제67회 정기회의에서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안) 외 8건이 원안가결 되어, 지난 4월 13일 학교장에게 이송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회의록 열람 -

부위원장(양진석)

제67회 정기회의 회의록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회기결정

부위원장(양진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으로 제68회 전주만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양진석)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2018.9.1.자 교장공모제 지정 계획 심의(안) 외 1건으로 심의를 위해 이번 임시회를 5월 25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전원) “이의 없습니다”
부위원장(양진석)	그럼 의사일정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 1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 양건심의	
부위원장(양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안 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2안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변경 계획을 먼저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괜찮습니까?
위원일동	“네 좋습니다.”
부위원장(양진석)	그럼 제2안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부장(김한나)	방과후부장 김한나입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지침 변경 공문 시달로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변경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침 변경 내용은 스포츠강사는 내부강사 기준에 맞추어 시간당 강사료를 30,000원에 맞추라는 것과 6월부터 적용하여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시간당 강사료를 30,000원에 맞출 경우 체육관련 부서의 수강료 차이가 커서 배드민턴 부서의 요일을 월,금에서 월,수,금으로 늘리고자 하며 수강료는 20,000원에서 18,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변경 사항은 6월 1일부터 적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에 의거 제안 설명)
부위원장(양진석)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자세히 더 알아보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김현철)	배드민턴반 수강료는 낮아지고 수강요일은 늘어나니 학생들에게는 더욱 좋겠네요.

방과후부장(김한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양진석)	(질문이 없자) 질의 사항 없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부위원장(양진석)	원안에 동의합니까?
위원일동	“동의합니다.”
부위원장(양진석)	위원 전원이 동의하므로 의사일정 제2안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변경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부위원장(양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안 2018.9.1.자 교장공모제 지정 계획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강희석)	네. 학교장 강희석입니다. 2018.8.31.자 학교장 정년 퇴임으로 인해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2018.9.1.자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로 지정되어 신청 여부를 심의받고자 합니다. 세계화·정보화, 지식기반사회 및 평생학습체제로 이행, 교육개혁 정책 등 급격한 학교 내외의 환경 변화 속에서 학교는 학교장에게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경영자(CEO)로서의 새로운 역할 모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이 가능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의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교장공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장공모제란 현직 학교장 또는 교장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 교육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장 임용 후보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교장공모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주관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학교 특색 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교장 임용이 가능합니다. 교장공모제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는 응답율 51.6%로 찬성을 40.8%, 반대율 10.9%로 결과 나왔으며, 교사는 39명 중 1명 찬성 2.5%, 반대 38명 97.5%로 나왔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제안 설명)
부위원장(양진석)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자세히 더 알아보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은영)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정반대네요. 결과에 대해 상당히 놀랍네요.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학부모님들이 자세히 잘 모르고 설문에 응한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위원(김현철)

저는 선생님들 설문결과는 이렇게 나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도 교장공모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설문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정보의 시대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교장공모제가 어떠한 제도인지 잘 모르고 궁금하면 알아보고 설문에 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위원장(양진석)

선생님들께서 반대한 이유도 분명 있을텐데요. 교사들은 교장공모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위원(김수진)

네. 저 개인적인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교장공모제로 있던 학교에 다녔습니다. 물론 교장공모제를 통하여 심사를 거쳐 좋은 교장선생님이 오시고 학교 교육환경이 좋아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공모제로 온 교장선생님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눈에 띄는 드러나는 실적을 많이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 교육과정에 반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교사들은 교육과정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아이들 교육에 전념해야 하는데 그런 시간과 여유를 빼앗기고 불필요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학부모입장에서도 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수치화한 행사들이 더 많이 생기고 불필요한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위원장(양진석)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게 되면 초임이신 분들도 공모할 수 있나요?

위원(김수진)

네. 교장자격증 소지하고 있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실제로 교장공모제 시행하는 학교에 많이 공모하기도 합니다.

위원(장은영)

학부모 응답 중 찬성이 더 많은데 반해 교사는 1명만

찬성했다는 설문결과가 저는 좀 충격적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보다는 교사가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교사의 의견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김수진)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장공모제로 오시는 교장선생님이든 인사발령에 의한 교장선생님이든 학교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더 좋은 학교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교장선생님이 오시면 좋겠지요. 물론 모든 교장공모제 학교가 다 안 좋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학교 규모에서는 오히려 경험도 많고 연륜이 많은 교장선생님께서 오시는 것이 학교 운영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교장선생님께서서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경영하시는 분이어서 공모제보다는 경험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위원(김현철)

학부모가 찬성한 이유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 심의안건을 받아보고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검색도 해보고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자료도 있고, 공모제를 통하여 온 교장선생님이 보여주기식 행사나 학부모에게 치우친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절차의 정당성과 객관적인 견해,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지역 학부모님들의 수준도 많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제에 대한 단점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김관용)

제가 이 학교 오기 전 교장공모제 학교에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실제로 교장공모제 업무담당을 수행하였고 같이 근무도 해보았습니다. 교장공모제 출발점은 특성화 중·고등학교를 전문성이 있는 교장선생님을 모셔서 특화된 교육을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공모제가 다년간 운영되면서 공모제에 대한 안 좋은 점이 발생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교장공모제는 2년이 지나면 성과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2년 안에 공약을 지켜내기 위해 많은 행사를 하게 됩니다. 학생 중심의 공약을 했고 그렇게 실천되면 더할 수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2년 안에 수치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이 가시적으로 눈앞에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여기저기서 불필요한 사업을 끌어오고 예산을 끌어와서 교직원들은 교직원대로 힘들고 교사는 아이들한테 집중할 시간이 모자란 상황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위원(김현철)	교장자격증 소지자 말고 나이 제한은 있나요?
위원(강희석)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오영진)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이 다른 결과가 안타깝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잘 모르고 찬성에 사인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나름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검색해보고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왔습니다. 학부모 의견이 비전문가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교장공모제가 긍정적인 측면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장 선생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심사해서 뽑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원위원님들께서 경험한 교장공모제 시행학교가 단점을 모르고 시행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교사와 운영위원들이 균형있게 견제하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의 교육이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강희석)	위원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 28일 교육청에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를 바로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공문이 와서 바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근무할 때 교장공모제 업무도 담당해 봤고, 제 경험상으로 내 서열이 낮아 멀리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공모제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처럼 30학급 이상인 큰 규모 학교는 인사발령 전 교장자격 검증을 위하여 교육감과 충분한 면담을 하고 발령을 냅니다.
위원(김현철)	저도 교장공모제 폐단을 많이 보고 들어왔습니다. 공모제로 온 교장선생님이 자기에 대한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 아이들 교육이 간과되기도 한 경우도 들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와의 의견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교육부 통계나 참고자료는 있나요?
위원(강희석)	전국적으로 교장공모제 시행학교는 학급수가 6학급 내지 3학급 학교로 학생이 50~60명 정도 규모의 학교가 공모제를 시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김현철)	교장공모제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위원(강희석)	교원, 학부모, 운영위원, 지역사회인사, 교육청에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합니다.
위원(김관용)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모제 취지가 특성화학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공립 초등학교는 초등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30~40년 동안 교육자 자리에서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쌓고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교육자가 교장선생님으로 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양진석)	우리가 교장공모제 장·단점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봅니다. 지금 누구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니 교장공모제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 어떨습니까?
위원일동	“좋습니다.”
부위원장(양진석)	안전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나 추가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부위원장(양진석)	그럼 교장공모제에 대한 찬·반을 거수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위원 없음)
부위원장(양진석)	그럼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위원 9명)
부위원장(양진석)	교장공모제에 찬·반 투표 결과 찬성 0표, 반대9표, 기권 1표로 나왔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안 2018.9.1.자 교장공모제 지정 계획 심의(안)은 교장공모제 시행 반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o 기타사항 협의	
부위원장(양진석)	기타 사항이나 협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부위원장(양진석)	더 이상 협의사항이 없으므로 제68회 전주만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시간	<12시 00분 폐회>
출석위원 10명	양진석, 오영진, 김현철, 장은영, 이현성, 박지연, 박정순, 강희석, 김관용, 김수진
간 사	행정실장 설인섭 (인)
기록자	주무관 김현덕 (인)